

이현주의 『바보 온달』에 나타난 성장서사 연구

김태호*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문학 성장서사의 지형을 살펴보고 그 지형 하에서 『바보 온달』의 성장서사를 분석하는 데 있다. 아동문학에서 아동 인물의 성장은 흔히 상징계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펼쳐진다. 아동 인물은 성장하면서 사회의 법과 질서를 내면화하거나 그 모순으로 분열을 경험한다. 이러한 성장은 상징계를 아동들이 수용해야 할 질서로 고정한다는 점에서 체제 순응적이다. 그런데 간혹 아동문학 작품 중에는 상징계의 질서를 거부하는 성장의 여로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 상징계에서 탈주하는 형식의 성장서사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는 동물의 자연성이 상징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지형에서 살펴보면, 『바보 온달』에는 특별한 성장의 여로가 나타난다. 주인공 온달은 상징계에 입사했다가 그로부터 다시 탈주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은 온달이 인간이면서 동물처럼 자연과 교섭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온달은 상징계에 입사하기 전 상상계적 모성의 자연과 동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온달이 상징계적 질서를 내면화하여 장군이 된 이후, 다시 내면의 자연성을 일깨우는 근원적 힘이 된다. 짝패 바우와의 조우로 온달은 상징계적 질서의 비윤리성을 자각하고 그로부터 탈주한다. 이처럼 『바보 온달』에서 온달은 상징계에 입사했다가 다시 탈주하는 성장의 여로를 보인다.

■ 주제어 : 아동문학, 성장서사, 『바보 온달』, 반오이디푸스 성장, 패러디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bleedka1@hanmail.net

— 목차 —

- | | |
|--|---|
| 1. 머리말
2. 아동문학과 성장서사
1) 아동문학 성장서사를 보는 관점
2) 아동문학 성장서사의 지형 | 3. 『바보 온달』의 성장서사 분석
1) 자연과 교감하는 ‘바보’ 온달
2) 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된 ‘장군’ 온달
3) 온달의 탈주와 반오이디푸스 성장
4. 맺음말 |
|--|---|

1. 머리말

아동문학은 성장서사와 친연성을 갖는다. 아동문학의 구심점인 아동이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인간의 삶 자체가 성장의 연속이다. 하지만 아동기는 성장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정체성 역시 이 시기에 형성된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장은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동화나 아동소설에서 성장을 중심적인 모티프로 삼는 작품이 많은 것 역시 이에 기인한다.

성장서사가 아동문학의 본질과 직결되는 서사 유형임에도 아동문학 학계에서 본격적인 성장서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성장서사 자체가 불명료하여 연구가 쉽지 않다. 성장서사의 개념이 불확실하고 그 경계도 가변적이다. 그러나 연구의 난점이 연구 부재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성장소설의 경우, 성장소설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고, 서구의 교양소설이나 입사소설과 다른 성장소설만의 특성이 규명되었다.¹ 그에 비하면 아동문학 성장서사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소략하다. 아동문학 성장서사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론 차원

¹ 이보영,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

에 머물렀다.² 소수의 작품 연구 역시 성장소설의 문법을 아동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데 그쳤다.³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문학 성장서사를 조망한다는 장기적 기획의 일환으로 이현주의 『바보 온달』을 분석하고자 한다. 『바보 온달』은 온달 설화(溫達說話)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온달 설화는 고구려 평강왕의 딸 평강이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된 후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⁴ 이현주는 이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이현주는 평강의 개조로 온달이 순수한 내면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는 『바보 온달』에서 온달의 사회적 성공을 인격적 몰락으로 전복하여 형상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에 나타난 성장의 여로가 일반적인 아동문학의 성장서사와 다르게 나타나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문학 성장서사는 아동 인물이 상징계적 질서에 입문하는 과정을 그린다. 아동 인물이 부모 혹은 선생님, 친구 등 사회적 인간관계에 접촉하면서 겪는 심리적 경험이 강조된다. 이와 달리, 『바보 온달』에서 성장은 상징계적 질서에 안정적으로 편입한 온달이 그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징계적 질서에 대한 비판을 함의한 반오이디푸스 성장으로 볼 수 있다.⁵

2 김태호, 「한국 현대 아동성장서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3 박강부, 「정재봉 성장소설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나경, 「성장소설로서의 현덕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최하영, 「권정생 성장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 이 설화는 대표적인 민담 중 하나로 『삼국사기(三國史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구전으로도 전승되어 왔다. 최운식, 「『온달 설화』의 전승 양상」, 『한국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2, 468-468면.

5 이현주의 『바보 온달』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성애, 「『바보』로 살기의 정치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241-267면; 정진희, 「이현주 동화『바보 온달』의 자기실현 인식양상 연구」, 『돈암어문학』 22집,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어문학회, 2009, 55-88면; 황운희, 「이현주의 아동문학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이들 논문은 『바보 온달』의 서사적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성과가 있으나, 여직 성장서사의 관점에서 『바보 온달』을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반오이디푸스 성장의 관점에서 『바보 온달』의 성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문학 성장서사의 지형도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아동문학과 성장서사

1) 아동문학 성장서사를 보는 관점

성장서사는 보편적인 서사 형식이다. 어느 문화에나 유년기나 소년기의 인물이 성인세계에 입문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을 담은 서사가 존재한다. 서구에서는 이를 교양소설(Bildungsroman), 형성소설(Novel of Formation), 입사소설(Initiation novel) 등으로 명명한다. 그 명칭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문학적 특성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독일에서는 개인이 내면적 성숙을 통해 시민계급의 교양을 수용하는 과정을 그린 일군의 소설들을 교양소설로 지칭한다. 영국의 경우 개인의 내면보다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둔 형성소설 장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현실이나 독재를 경험하면서 사회의 부정성에 대면한 청년들의 방황과 동요를 그린 작품군이 존재하며, 이를 성장소설이라 부른다. 성장소설에서 아동과 성인세계는 이분법적 구조로 나타난다. 순진한 아동은 부정적인 성인세계에 편입되거나 환멸로 퇴행한다. 김승옥의 『건』, 김남천의 『소년행』, 황순원의 『별』 등이 전자에, 김승옥의 『환상수첩』, 오정희의 『유년의 뜰』, 은희경의 『새의 선물』 등이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작품이다.

아동문학에도 성장을 다룬 일군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장소설의 서사문법을 이들 작품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성장소설과 달리 아동문학의 성장서사는 성장하는 주체로서 아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⁶ 성장소설에서 순진한 아동과 성인세계를 대립시켜 성인세계의 부정성을 부각하는 것과 달리, 아동문학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내적 방황과 갈등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성장소설에서 성장의 귀결점이 성인세계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문학의 성장서사에서 성장의 귀결점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문학의 성장서사를 성장소설로 명명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아동문학의 성장서사가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을 만큼 일관된 미학적 원리가 밝혀진 바도 없다. 그 때문에 ‘아동문학의 성장서사’라는 폭넓은 범주의 용어를 사용한다. 성장의 모티프가 중핵적인 서사 유형이라면 아동문학의 성장서사라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장을 보는 관점이다.⁷ 성장은 범주가 모호하다. 무엇을 성장으로 볼 것인가 불명확하다. 분명한 것은 ‘성장’을 지나치게 미시적인 이행 과정으로 규정하면 성장서사라는 경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이다. 아동 인물은 신체적으로 늘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아동 인물의 내적 변화 자체가 성장이다. 이러한 미시적 변화를 모두 성장으로 간주하면 모든 아동문학 작품이 성장서사이며 성장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불필요하다.

이에 성장소설은 물론, 아동문학의 성장서사 연구에서는 흔히 통과제의 관점을 취한다. 통과제의는 원시시대 성인이 되기 위해 경험했던 특

6 김태호, 「한국 현대 아동성장서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27-40면.

7 김태호, 「아동문학에 나타난 동물 인물의 성장서사」, 『제31회 한국아동문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75-83면.

별한 의식을 말한다. 아동은 시련을 통과하거나 도전을 성취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근대 이후 성장은 기존의 의무와 역할을 세습하는 수동적 과정이 아닌,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변모하였다.⁸ 성장소설이나 아동문학의 성장서사에서 통과제의는 정체성 확립이라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로로 나타난다. 이 관점에서 성장은 분리-전이-결합이라는 도식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과제의의 관점은 현대 아동의 성장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⁹ 원시시대 통과제의는 공동체의 진리를 깨닫고 성스러운 원시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현대 아동들은 통과제의를 거쳐 세속적인 성인세계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 내면의 순수성이 훼손된다. 즉 아동들은 정신적 분열과 방황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현대 아동의 성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단선적인 통과제의로 설명하기 어렵다. 분리-전이-결합이라는 통과제의의 단계 역시 현대인의 내밀한 성장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의 오이디푸스 문화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현대 아동의 성장을 해석하는 데 정교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장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한다. 아동은 어머니와 이자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개입으로 근친상간 금지의 질서가 부여되고 아동은 거세 위협을 느낀다. 아동은 자신이 어머니

8 문학사회학회 연구 역, 「갈등과 성숙의 자아탐색-인간과 성장」,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134면.

9 나병철, 「청소년 환상소설의 통과제의 형식과 문학교육」, 『청람어문교육』 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364-370면.

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수용한다.¹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아동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며 자신은 업둥이나 사생아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친부모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라 상상하며 부모에게 복수한다. 이러한 아동의 상상적 서사를 가족로망스라 한다. 가족로망스는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심리적 불화와 화해에 관한 가족서사이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구조를 사적 차원(가족)에서 공적 차원(사회)로 확장한다. 라캉은 아버지의 자리에 상징계(the Symbolic)로 명명되는 사회 체제의 법과 규범, 언어적 질서를 위치시킨다. 상상계(the Imaginary)에서 아동은 실재에 접근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총체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을 동일시한다.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아동은 사회 체제와 언어적 질서를 내면화하고 사회적 자아로 굴절된다. 그렇지만 상징계는 아동의 욕망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이를 깨달은 아동은 상징계에 복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본질로서 실재계(the Real)를 욕망한다.¹¹

오이디푸스 문화론에 따르면, 성장이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주체가 되는 과정이다.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상상계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주체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 지점에서 오이디푸스 문화론을 전복한다.¹² 그들은 상징계에 적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신경증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말한다.

10 Calvin S. Hall,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195-198면.

11 권택영, 「해설: 라캉의 욕망이론」,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4, 15-24면. 권택영은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요, 그 대상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다음 대상을 찾아나서는 게 실재계다.”라고 설명한다. 권택영, 앞의 책, 20면.

12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352-353면.

자본주의적 상징계의 동일화가 윤리적 소망과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규율에서 이탈하는 탈주의 욕망을 논의한다. 이는 곧 반오이디푸스 성장이라 할 수 있다.¹³

2) 아동문학 성장서사의 지형

니콜라예바는 아동문학의 플롯이 ‘집-바깥-집’의 회귀적 여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¹⁴ 아동 인물이 집을 떠나 모험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궤적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궤적은 아동문학이 본질적으로 성장과 연관됨을 보여준다. 아동 인물은 바깥 세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인물은 정신적 성장을 경험한다. 그리고 예전보다 성숙한 존재가 되어 집에 돌아온다. 이때 최종 목적지는 안전한 집이다.¹⁵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안전한 집인 것은 서구의 경우이다. 교양소설에서 보듯이 서구 문명에서 아동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 아버지로 표상되는 사회는 결점이 있지만, 그 결점이 아동이 화해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일례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주인공 맥스는 엄마에게 반항하여 섬으로 떠난다. 맥스는 괴물들을 길들여 자신을 왕으로 떠받들게 만든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적인 공간은 실상 문명으로 괴물들을 식민지화한 결과이다. 이는 식민지 건설을 통해 원주민들

13 들뢰즈는 정신분석이 오이디푸스를 인간의 욕망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오이디푸스를 이용하여 자본주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상을 길러낸다.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17, 133면.

14 Maria Nikolajeva, 김서정 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8, 124면.

15 물론 니콜라예바는 근래 들어 회귀적 여행에서 단선적 여행으로 플롯이 변화하였고 열린 결말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단선적 여행은 안전을 보장하는 귀향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모험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Maria Nikolajeva, 김서정 역, 위의 책, 124-128면.

을 문명에 동화시키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던 서구의 정치적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¹⁶ 집에 다시 돌아온 맥스에게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맥스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아동에게 안전한 집이 허용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식민 지배를 받거나 전쟁, 독재, IMF 등 암담한 현실을 경험하였다. 그런 사회에 편입되길 강요당한 아동들이 방황과 분열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성장소설에서 청년 주인공들이 종종 현실과 화해를 포기하고 환멸에 이르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아동문학에서도 아동들에게 집은 ‘안전한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 아동문학의 성장서사를 ‘집-바깥-집’의 단선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표적인 예로 현덕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 김남중의 『동화 없는 동화책』 단편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아동 주인공은 식민지 현실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받고 낯선 두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이행할 때 필연적으로 겪는 시련이다. 범박하게 이런 관점의 성장서사를 규정하면, 아동이 암담한 현실을 자각하는 인식적 성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징계에 진입하길 거부하는 반(反)성장이다. 박기범의 『문제아』가 그 예이다. 이 작품에서 창수는 학교라는 사회 체제에 진입하면서 문제아로 낙인찍힌다. 그는 현실의 부정성에 환멸을 느끼고 성장하길

16 서구소설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오이디푸스적 문화를 기반으로 펼쳐진다. 대표적인 작품이 『로빈슨 크루소』이다. 아버지와 사회에 반항하여 또 다른 세계로 향한 로빈슨 크루소는 원주민들에게 서구의 오이디푸스 문화를 이식하면서 종국적으로 서구 문명에 복종한다. 나병철, 위의 책, 51-55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 역시 서구의 오이디푸스 문화를 반영한 작품의 전형이다.

거부한다. 이 작품 역시 환멸과 퇴행을 직접적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창수는 부정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학교를 다니며 생계를 위해 신문배달을 한다. 이는 창수의 내면이 심각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봉수라는 인물 역시 창수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게 한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도 창수가 돌아갈 안전한 집은 존재하지 않으며, 창수는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집-바깥-집’을 변형한 플롯으로 성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이 상징계에 편입되면서 상징계의 부정성을 변화시키려는 실천을 하는 작품들이다. 황선미의 『나쁜 어린이표』, 이금이의 『유진과 유진』 등이 그 예이다. 이들 작품에서 아동 주인공은 현실의 부정성과 대면하면서 방항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인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선생님, 엄마)과 대화를 모색하고 어른들의 세계를 미결정적 상태로 변화시킨다.¹⁷ 이러한 성장 방식은 성장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아동 인물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결말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동문학에서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담아내기 위해 이러한 플롯을 활용한다.

동물이 주인공인 경우, 앞선 아동 인물의 성장과 다른 궤적이 나타나기도 한다.¹⁸ 아동 인물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다. 자연히 사회화 되는 과정, 즉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와 달리, 동물에게 사회화는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동물들은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자연적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동물들의 성장은 인간세계(상징계)의 균열을 드러내고 이로부터 탈주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나 『네모돼지』가

17 김태호, 「한국 현대 아동성장서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48-61면.

18 김태호, 「아동문학에 나타난 동물 인물의 성장서사」, 『제31회 한국아동문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75-83면.

이러한 서사 유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지형에서 『바보 온달』을 보면, 이 작품은 특별한 위치에 놓인다. 『바보 온달』의 성장은 주인공 온달이 상징계에 입사했다가 다시 그로부터 이탈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은 온달이 인간이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달은 비록 문명에 길 들여졌지만, 자연적 존재인 바우와 조우하면서 그는 문명으로부터 이탈을 욕망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바보 온달』의 성장서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3. 『바보 온달』의 성장서사 분석

이현주의 『바보 온달』은 온달 설화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패러디는 기존 작품을 창조적으로 반복하며 비판의식을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패러디된 작품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차이를 보여주면서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¹⁹ 이현주는 온달 설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읽고 서사에 내재된 계몽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킨다.

온달 설화는 전근대적 관점의 성장을 그린다. 이 서사는 미천한 주인공이 처지를 극복하고 고귀한 성취를 이루는 입사담의 서사 형식을 따른다. 미천한 바보 총각 온달은 조력자 평강공주를 만나 산에서 나온다(분리). 그는 무술을 연마하는 시련을 견뎌내고(전이) 사냥대회 출정으로 입사하여 전장에서 큰 공훈을 세운다(결합). 이처럼 온달이 통과제의를 거쳐 민중적 영웅이 되는 과정은 영웅의 입사식 과정인 분리-전이-결합의

19 Linda Hutcheon, 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156면.

구조로 진행된다. 즉 온달 설화 자체가 하나의 성장서사이다.

하지만 이현주는 온달의 성취를 성장이라 보지 않는다. 전근대적 관점에서 성장은 직위, 보물, 신부 등 외부 대상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으나 근대적 관점에서 성장은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다. 온달은 평강의 도움으로 장수가 되지만, 이 과정은 성장이 아닌 개조였다. 평강이 주입한 관념을 수용하면서 온달은 본디 가졌던 정체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권력에 예속된 인간으로 변질된다. 이처럼 온달의 사회적 성취는 내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현주는 타자를 억압하는 온달 장군이 아니라 자연과 화합하는 바보 온달이 현대문명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라 말한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기계기술 문명, 과학적인 사고방식 전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우리의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바보 온달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중략)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바보지만 사실은 정말 깨끗한 존재죠. 바보 온달은 자기와 세상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죠. (중략) 그런데 평강이 나타나서 바보 온달을 개조하잖아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문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착하면 본래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²⁰

이러한 창작 의도는 특히 인물 형상화 방식에 반영된다. 『바보 온달』은 전반적으로 온달 설화의 서사 연쇄를 따른다. 그렇지만 인물을 형상화할 때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거나 인물시점에서 시공간의 지각을 표현

20 유영진, 「그 작품 그 작가(2)-『바보 온달』의 작가, 이현주를 만나다」, 『창비어린이』 10(4), 2012, 209면.

하는 등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온달을 획일적인 관념체계에서 해방시켜 내면적 복잡성을 갖도록 만든다. 이는 온달이 기존의 관념 체계를 전복하고 내면적 성장에 이르는 형식적 조건이 된다.

온달 설화에서 온달은 공동체의 관념에 속박된 인물이다. 그는 충(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이는 봉건제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 추구해야 할 관념이었다. 온달은 그러한 공동체의 관념에 즉해 있는 인물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끝내는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이와 달리, 『바보 온달』에서 온달은 복합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는 무의식적 내면을 지닌 존재로 표현된다. 무의식적 내면은 의식적 신념과 무관하게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표면의 신념을 와해시키는 내면 작용이다.²¹ 온달의 의식적 신념은 국가를 위해 적을 무찌러야 한다고 믿지만, 그의 무의식적 내면에는 자연과 화합하는 경험이 잠재되어 있었다. 작품 말미에 바우의 피를 뒤집어쓴 온달이 바보 온달의 못생긴 얼굴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무의식적 내면이 의식적 신념을 전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보 온달』에 나타난 성장의 여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1) 자연과 교감하는 ‘바보’ 온달

온달은 ‘바보’라 불렸다. 그가 사회적 규율과 법에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온달은 나무를 해 오거나 토끼를 잡아올 줄 몰랐다. 사람

21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6, 145면.

들이 자기를 놀리거나 때려도 화를 낼 줄 몰랐다. 궁궐이나 임금 등 사회적 계급에 대한 의식도 없었다. 심지어 고승 장군의 길을 막았다가 채찍질을 당해도 용서를 빌거나 저항할 줄을 몰랐다. 이런 모습은 온달이 아비투스²²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²² 신체적으로 성숙하였지만, 온달의 정신은 상정계의 규범에 진입하지 않은 채 상상계에 머물러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온달이 어머니가 아닌 자연을 상상계적 모성으로 여기는 점이다. 온달의 어머니는 온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온달을 바보로 생각하고 걱정했다. 온달 역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온달은 자연과 교감하며 상상계적 합일을 경험한다.

그러나 산 중에도 온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산이었다.

나무와 바위 사이로 아직은 찬 밤바람이 술렁이고, 풀잎마다 이슬이 영글기 시작하는 새벽 수풀이 온달은 너무나도 좋았다. 나뭇잎에 묻은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벗겨지고 수풀 사이사이로 희뿌옇게 밝아 오는 동녘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숲 속은 조금씩 술렁대기 시작한다. 밤새도록 보초를 섰던 부엉이는 피곤한 얼굴로 나뭇가지에서 하품을 하고, 작은 토끼는 귀를 쫑긋거리며 새벽 일을 나간다.

하루 생활이 천천히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온달은 도토리나무 향기를 맡으며 골짜기 바위 그늘에 앉아 똥을

22 아비투스는 개인의 인지, 지각, 판단, 행위의 성향체제로 사회계급 구분이 육화되어 형성된다.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6, 312면.

눈다. 그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이른 새벽 나뭇가지 사이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별들이 총총 빛나는데, 그 아래 앉아 시원하게 똥을 누다 보면 온달의 조금만 눈알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다. (중략) 그 순간 온달과 산과 별이 온통 어울려 한 몸으로 되는 것이다.²³(밑줄 인용자)

자연은 만물의 궁극적인 모태이다. 온달은 자연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특히 온달은 남달리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산 속의 짐승들은 모두 온달의 동무였다. 바우와의 만남도 온달이 개울물에 떠내려가는 바우를 구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온달은 바우에게 씨름, 바윗돌 들어올리기, 나무 기어오르기, 물고기 잡기 등을 배운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곰처럼 변한다. 걸음걸이부터 손짓 발짓까지 곰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온달은 현실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본능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면서 자연과 합일된 삶을 살아갔다.

온달의 인식 저변에는 애니미즘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 애니미즘은 자연물이 인간과 같은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다. 상징계적 질서에 진입하지 않은 온달은 애니미즘을 바탕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이 경험은 후에 그가 상징계적 질서에서 이탈하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한다.

2) 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된 ‘장군’ 온달

그러던 어느 날, 온달에게 평강 공주가 찾아온다. 평강 공주의 등장은 오이디푸스 구조에서 아버지의 출현에 다름 아니다. 평강 공주는 온달이 상상적 합일에서 벗어나 상징계적 질서를 수용하도록 만든다. 평강 공주

23 이현주, 『바보 온달』, 우리교육, 2009, 15면. 이하 작품 인용은 면수만 표시함.

의 향수 냄새, 금반지, 비단, 닭고기 등은 온달이 평강 공주의 취향을 획득하도록 만든다. 취향은 차별화를 통해 차이를 만들고 개인에게 사회적 방향감각(자기 자리에 대한 감각)으로 기능한다.²⁴ 온달은 이제 밥을 구걸하지 않고 비단옷을 입고 거리 구경을 한다. 평강 공주의 보물을 팔아 기와 집, 논밭, 종들도 구했다. 평강 공주는 온달에게 활과 칼 쓰는 법을 가르친다. 온달은 처음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곧 평강 공주에게 순종한다.

온달은 점차 상징계적 질서를 내면화한다. 이는 본능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욕망은 언어의 거꾸집 속에서 구조된다.²⁵ 오이디푸스 구조에서 인간은 담화를 통해 타인의 견해나 욕망은 수용한다. 그런데 온달은 언어를 배웠지만 상징계적 질서에 예속되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적 본능에 따라 살았다. 평강 공주는 온달에게 사회적 법과 규율을 가르쳤고, 온달은 평강 공주를 모방하면서 상징계적 질서에 예속된다. 이제 온달은 본능적인 욕구보다 사회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탈바꿈한다. 온달은 ‘바보 온달’에서 ‘온달 장군’으로 변모한다.

온달 설화에서는 이를 성장 과정(전이)으로 보았으나, 『바보 온달』에서는 이를 온달이 소외되는 과정으로 형상화한다. 온달은 상징계에 편입되면서 타인(평강 공주)의 욕망을 추구한다. 고구려 제일의 장군이 되는 것이었다. 이를 성취하려면 타자(자연)를 억압해야 했다. 온달은 점차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을 잃어버린다. 표면적으로 온달은 능동적인 욕망의 주체로 보이나, 실제 그는 타인의 욕망을 추구할 뿐이었다. 온달은 본래적 자아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다.

24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6, 837면.

25 Bruce Fink,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b, 2018, 28-35면.

① 온달은 두 번째 때리려고 막대기를 들었지만 그냥 내리고 말았다. 공주 이마에 가느다란 실처럼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달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온달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자기 손으로 남을 때렸다는 사실이었다. 난생 처음 남을 때려 본 것이다. 온달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더니 왈각 구역질이 났다(88면).

② 온달의 머리에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바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아, 보고 싶은 바우. (중략) 홍수가 난 개우물에 들쭉날쭉하며 떠내려 오던 어린 꿈을 건져 올리던 일부러 수풀 속에서 씨름하며 놀던 일, 그리고 넓은 꿈 어개 위에 올라앉아 골짜기를 오르내리던 일이 하나하나 생각났다. (중략) 온달은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벌떡 일어났다(119면).

③ 공주는 토끼의 목덜미에 푹 박힌 화살을 뽑아 들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묻은 그 화살에는 파란 띠가 매어져 있었다. (중략) 그러나 그때 온달은 얼굴이 낮달처럼 하얗게 돼 가지고는 뉘을 잃고 죽은 토끼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략) 온달은 몸이 부르르 떨렸다. 발 앞에 숨이 끊어져 늘어진 토끼 뒷다리도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134면).

④ 온달은 아까보다도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두 다리까지 부들부들 떨렸다. 눈을 감고 얼굴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주위가 온통 붉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 늑대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중략) 늑대가 다시 온달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온달은 눈물이 나왔다. 한 방울, 두 방울……. 드디어 온달의 뺨죽한 볼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물기가 축축한 온달의 눈동자. 그것은 생명 있는 것을 처음으로 죽인 착

한 사람의 겁에 질린 눈동자였다(139-141면).

⑤ 공주가 첫 사냥길에 죽여 버린 바보 온달은 영영 되살아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제 온달은 고구려의 장군답게 늙음하고 영리한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 아무것도 온달을 두렵게 할 수 없었다. (중략) 온달은 매일같이 사냥을 즐겼다. 때로 맹수를 만나 피를 뿌리고 싸운 날이면, 온달의 어깨는 더욱 넓어지고 가슴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었다(146면).

위 인용문은 온달의 무의식적 내면이 사회적 욕망에 잠식당하는 과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①은 집으로 온 평강 공주를 때릴 때 온달의 심정이다. 온달은 모든 생명을 긍정하던 존재였다. 그런 그가 남을 때릴 만큼 평강 공주에게 거부감을 보인다. 일전에 평강 공주가 고승 장군의 채찍질을 막아준 순간 온달은 평강 공주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길, 은은히 풍겨 오던 향기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었다. 그것은 문명의 손길이였다. 온달은 평강 공주를 거부하고 산으로 달려간다. 이는 문명을 거부하는 본능의 발로이다.

문명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온달은 종종 바우를 떠올린다. 예전처럼 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②). 아직까지는 온달에게 자연과 교감하던 무의식적 내면이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근거이다. 그렇지만 평강 공주의 계몽 이성은 온달을 점진적으로 문명화한다. ③에서 온달은 평강 공주가 사냥한 토끼를 보며 폭력에 거부감에 몸이 부르르 떨린다. 처음으로 알미운 늑대를 죽이고 온달은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흘린다(④).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자연과 교감하던 그의 무의식적 내면이 심층에서 활성화된 것이다.

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된 이후 온달은 더 이상 자연과 교감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국가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의식적 신념(患)에 사로잡혀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⑤). 평강 공주가 제시한 상징계의 시니피앙(강인함, 국가에 대한 충성 등 사회적 가치)에 동일시하면서 온달이 오이디푸스 구조의 일원으로 주체화된 것이다. 온달의 무의식에서도 자연 대신 문명화된 욕망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후 그의 무의식적 내면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다. 온달의 의식적 층위와 무의식적 내면 모두 상징계적 질서에 즉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교섭 가능성을 상실한 온달은 상징계적 질서를 전복할 힘을 잃어버린다.

3) 온달의 탈주와 반오이디푸스 성장

온달은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온달은 고구려의 국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어떻게든 제거하려 했다. 화랑과 만났을 때에도 온달은 주저 없이 칼을 겨눈다. 하지만 그들은 온달의 부하들을 볼모로 잡고 있었다. 온달은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활과 칼을 버린 채 쫓겨난다. 무력(권력)을 상징하는 무기를 빼앗긴 것은 온달에게 치욕적인 일이었다. 온달은 치욕을 갚기 위해 신라와의 전쟁을 일으킨다. 고구려의 땅은 충분히 넓었고 날씨는 추워지고 있었지만, 온달은 고구려를 위한다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백성들을 고난에 밀어 넣었다. 온달의 출정을 두고 평강 공주는 온달이 국가 이데올로기의 괴물이 되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평강 공주의 만류에도 온달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온달의 완결된 의식을 미결정적 상태로 돌려놓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우와의 재회이다. 바우는 원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작가

는 온달의 ‘짝패’(double)로서 바우를 창조한다.²⁶ 바보였던 시절 온달은 바우를 만나 자연과의 교섭을 확장한다. 온달은 바우에게 곶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 후 걸음걸이부터 손짓 발짓까지 곶처럼 변한다. 온달과 바우는 내면에 자연을 품은 존재라는 점에서 ‘한 짝’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온달에게는 인간적 면모가 남아 있었다. 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밥을 얻어먹는다. 평강 공주를 만난 온달이 본격적으로 상징계에 입사하면서 온달과 바우는 서로 ‘다른 패’가 된다. 문명화되어 타자(자연)를 억압하는 온달과 자연 그 자체인 바우는 대립적인 관계로 분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차산에서 온달과 그 군사들은 신라군과 맞붙을 때 바우가 달려온다. 바우는 더 이상 온달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에게 온달은 전쟁을 하며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에 불과했다. 바우가 달려들자 온달은 바우의 가슴 한복판에 칼을 꽂는다.

마침내 바우의 커다란 몸이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가슴에서 더운 피가 팔팔 샘처럼 솟아나 온달의 팔뚝과 얼굴을 적셨다. (중략) 온달은 죽어 가는 곶의 몸통이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들고 있던 피 묻은 칼을 멀리 내던졌다. 그러고는 아직 감기지 않은 옛 친구 바우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온달은 그 안에서 붉은 피가 엉겨 붙은 자기 얼굴을 보았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만 솟아났다. 그 맑은 눈물이 조금씩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 내렸다. 이윽고 온달의 얼굴에서 붉은 피가 다 씻겨졌을 때 남

26 짝패란 ‘짝이 되는 패’를 말한다. “카드나 화투에는 한 계열의 패들이 짝이 되어 상보적으로 존재”한다. 이 카드는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제구실을 못한다. 서사문학에서도 이 같은 대립적 구도에 놓인 인물쌍이 존재하는데, 이를 짝패라 한다. 짝패가 성립하려면 서로 ‘짝’이 되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면서, 각각의 ‘패’라는 점에서 차이성도 있어야 한다. 이강엽, 『신화 전통과 우리 소설』, 박이정, 2013, 71-82면.

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바보 온달의 그 못생긴 얼굴이었다. 바로 그 얼굴을 마치 막으로 비쳐 주고 나서 바우는 무거운 눈꺼풀로 눈알을 덮고 말았다(199-200면).

온달은 바우의 눈동자를 응시한다. 그 속에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괴물이 된 자기 모습이 있었다. 바우가 온달의 짝패임을 감안하면, 이 장면은 온달 장군이 자신을 바라보는 바보 온달의 눈빛을 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것은 폐쇄되었던 온달 내면의 자연성이 다시 활성화된 것이다. 그의 눈물이 피를 씻고 나자 다시 바보 온달의 못생긴 얼굴이 드러난다. 그 얼굴을 확인하고 바우는 눈을 감는다. 온달은 평강 공주가 용서를 구한 이유를 어렵פות이 깨닫는다. 온달은 자신이 본래 모습을 상실한 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느낀다. 바우가 눈을 감은 뒤, 곧이어 온달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온달이 상징계적 질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이탈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오이디푸스 구조란 결국 아버지(상징계)의 이상화이다.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장은 아버지의 세계와 타협하는 과정이다. 온달 역시 문명을 이상적인 아버지로 수용한 대가로 정상적인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비정상적인 ‘바보’에서 정상적인 인간, 더 나아가 새로운 아버지 ‘장군’이 된다. 그러나 장군 온달은 평강 공주나 새 왕보다도 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타자를 억압하는 괴물이었다. 다행히 짝패 바우의 존재는 온달이 오이디푸스화 되면서 잃어버린 자연성을 되찾게 해준다. 온달은 바우의 죽음을 통해 오이디푸스 구조에 진입하기 전 자연과 교섭하는 기억을 되살리고, 문명의 비윤리성을 자각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탈주하고 싶은

욕망을 내비치면서 오이디푸스 외부로 이탈한다. 이는 곧 반오이디푸스적 성장이라 하겠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아동문학 성장서사의 지형을 살펴보고 『바보 온달』의 성장서사를 분석하였다. 아동문학에서 아동 인물의 성장은 흔히 상징계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펼쳐진다. 아동 인물이 상징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거나 상징계의 모순에 분열을 경험하는 서사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장의 여로는 상징계, 더 나아가 오이디푸스 구조 자체를 아동들이 수용해야 할 사회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체제 순응적인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대다수인 것은 아동의 인식 수준과 현실적인 힘을 감안하면 아동문학에서 상징계로부터 이탈하는 서사를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물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에서는 상징계로부터 탈주하는 형식의 성장서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동물 인물이 근본적으로 상징계(인간세계)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아동문학 성장서사의 지형에서 『바보 온달』은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이 작품의 성장서사는 주인공 온달이 상징계에 입사했다가 이로부터 탈주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은 온달이 인간세계와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온달은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에 자연과 합일화된 경험을 한다. 온달은 평강의 개조 하에 상징계에 입사하나, 짝패 바우의 도움

으로 내면의 자연성을 일깨운다. 이러한 자연성은 상징계의 모순을 인지하는 근원적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온달은 상징계적 질서에 편입되면서도, 그로부터 탈주하기를 욕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온달의 성장은 반오이디푸스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장서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보 온달』의 문학성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현주, 『바보 온달』, 우리교육, 2009
유영진, 「그 작품 그 작가(2)-『바보 온달』의 작가, 이현주를 만나다」, 『창비어린이』 10(4), 2012, 206-219면.

2. 논문 및 평론

- 김태호, 「한국 현대 아동성장서사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김태호, 「아동문학에 나타난 동물 인물의 성장서사」, 『제31회 한국아동문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9, 75-83면.
나병철, 「청소년 환상소설의 통과제의 형식과 문학교육」, 『청람어문교육』 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363-395면.
박강부, 「정채봉 성장소설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성애, 「'바보'로 살기의 정치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241-267면.
정진희, 「이현주 동화 『바보 온달』의 자기실현 인식양상 연구」, 『돈암어문학』 22집,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어문학회, 2009, 55-88면.
황윤희, 「이현주의 아동문학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 단행본

- 권택영, 「해설: 라캉의 욕망이론」,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4.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6.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출판사, 2007.
문학과사회연구회 엮, 「갈등과 성숙의 자아탐색-인간과 성장」,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17.
이강엽, 『신화 전통과 우리소설』, 박이정, 2013.
이나경, 「성장소설로서의 현대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보영,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최운식, 「『온달 설화』의 전승 양상」, 『한국서사의 전통과 설화문학』, 민속원, 2002.
최하영, 「권정생 성장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 Hall, Calvin S,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 Nikolajeva, Maria, *Children's literature comes of age*, 김서정 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8.
- Hutcheon, Linda, *Politics of postmodernism*, 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6.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6.
- Fink, Bruce, *Lacanian subject :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b, 2018.

Abstract

A Study on Growth Narrative
in Lee Hyun-joo's *Fool Ondal*

Kim, Tae-ho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topography of children's literary growth narratives and to analyze the growth narratives of Foolish Ondal under them. The growth of children's characters in children's literature is often a process of entering the Symbolic world. Children's characters grow and internalize society's laws and order, or experience division by contradiction. However, in children's literature, where animals are the protagonists, there are often growths in which animal figures escape from the Symbolic world. This is possible because animal nature rejects the Symbolic world.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 special growth path in Fool Ondal. Ondal enters the Symbolic world and expresses his desire to escape from it. This growth is possible because Ondal has the power to negotiate with nature. Ondal experienced an assimilation with the nature before joining the Symbolic world. This experience becomes the fundamental force that awakens the inner nature again after Ondal became a general by internalizing the Symbolic world. In the

encounter with his partner Bau, Ondal shows anti-Oedipus growth, awakening from the unethical of the Symbolic world and escaping from it.

■ Key words : Children's Literature, Growth Narrative, *Fool Ondal*, anti-Oedipus Growth, Parody

■ 논문접수일: 2019. 10. 30.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